

## 광주비엔날레 일몰제 폐지 요구 뜨겁다

11차례 행사 760만 관람객 동원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 브랜드  
기재부, 부산영화제와 함께 적용시점 소급해 예산 지원 중단

1995년 대동한 광주비엔날레는 지금까지 11차례 행사를 진행하며 760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브랜드다. 지난 2014년에는 세계 200여개 비엔날레 중 '세계 5대 비엔날레'에 선정되는 등 국제적인 위상도 높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매년 20여만명의 관객이 찾는 전 세계인의 영화축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행사는 7회 이상 지원받은 국제 행사의 경우 국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일몰제'에 발목이 잡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위상 축소 위협에 노출돼 있다.

최근 국회 예산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비엔날레 등에 대한 일몰제 재검토와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일몰제 시행 시점을 자의적으로 소급해 적용한 점 등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등 해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

최근 2018년 행사 주제와 큐레이터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광주비엔날레는 올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995년 첫해 비엔날레 예산(준비년도 포함 2년 예산)은 117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40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매해 87억원~100억원의 예산 중 20~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지난 2014년과 2016년 행사 때는 각각 31억원이 지원됐다.

내년에 열리는 12회 예산은 재단 운영 경비, 인건비 등 약 93억원으로 재단은 이중 올해 국비를 18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올해 예산의 경우 기재부의 일몰제 적용 따라 2017 지출예산을 통해 9억원을 지원받았고 내년 예산 역시 9억원을 신청한 상태다.

예술계에서는 국제 행사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시작된 '일몰제'를 순수 예술 성격이 강한 행사에까지 일괄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광주비엔날레나 부산영화제처럼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구축, 국제적 위상과 파급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 행사마저 경제 논리로만 재단,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건 큰 손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문화 행사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인 데 반해 비엔날레는 이미 입장료와 기부금 등을 포함, 자부담 비율이 2014년 42억원, 2016년 38

### ■ 광주비엔날레 국·시비 지원현황

구분	행사비(단위:억원)			
	계	국비	시비	자부담
합계	1140	368	189	583
제1회	117	40	77	
제2회	106	30	18	58
제3회	104	14		90
제4회	91	20		71
제5회	87	40	4	42
제6회	95	40		55
제7회	95	40		55
제8회	89	43	3	43
제9회	91	30	15	46
제10회	87	31	14	42
제11회	98	31	29	38
제12회	93	18	39	36

억원 등 평균 40% 수준으로 자부담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일몰제를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제정된 '국제 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2016년 3월 광주시에 '2018 광주비엔날레의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심의 배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7회 이상 지원받은 행사에 지원을 중단한다는 일몰제 관련 조항이 개정된 시점은 2013년으로 일몰제 적용은 규칙 개정 이후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잇따라 지역 국회의원과 시, 재단 등을 중심으로 일몰제 재고 등을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송기석 의원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일몰제 재고 국정 질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달 광주시의회도 '국제행사 일몰제 관련 재검토 건의'와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영화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다이방벵' 상영 이후 국고 지원금이 반 토막 났다.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과거의 위상으로 되살리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국비 확보 등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서울을 방문, 일몰제 부당성을 알리고 비엔날레 예산 확보 등에 나섰던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나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지역 행사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행사다. 최근 일몰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기재부도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는 등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몰제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울엔 첫 눈 왔는데... 늦가을 단풍 속으로 20일 광주시 북구 충효동 풍암정 산책로를 찾은 시민들이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을 거닐며 늦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산 조용한 산행 원한다면... ▶7면

新 호남지 - 호남의 화가들 ▶18면

박성현·유소연 올해의 선수상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철새는 날아오고...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확진 '비상'

### 전북 고창 오리농장서도 검출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사육 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데 이어 순천만의 철새 분변도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AI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이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지난 13일 채취했으며 17일 중간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확인돼 정밀검사가 이뤄졌다. 올겨울 들어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고창 농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고, 철새 분변으로는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이날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21일부터 순천만을 폐쇄하고 반경 10Km 이내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순천만이 폐쇄되면 순천만 습지의 관광객 입장이 전면 금지된다.

전남도는 또 순천만 도래지 주변 도로에 군 제독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근에서 사육중인 모든 가금류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순천지역 전 가금농가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감염 등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아울러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과 동일 계열인 오리농가 정밀검사에서도 감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특히 향후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전남 나주와 장흥, 해남, 영암 등 위험지역 오리농가 27가구 55만5000마리에 대해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 제한 조치를 내리고, 휴업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모든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가고, 시·군 전담공무원 1212명도 투입돼 관내 가금류 농가에 대해 매일 예찰 및 차단방역을 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순천만뿐 아니라 고창군과 인접한 영광군과 장성군 일대에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남의 다른 철새도래지의 폐쇄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수능 두 번 연기 없다... 지진 발생해도 23일 치러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또 발생하더라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23일 치르게 된다.

지진으로 시험 무효가 된 학생들을 특별전형 등으로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 6·10면〉  
교육부는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과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지진 때문에 수능을 또 연기하거나 재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과 관련해 "출제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난 경우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다만,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난 경우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다만,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난 경우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다만,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전형은 각 대학이 몇 명을 정원 외로 모집할 것인지 이미 정한 상태에서 전형을 했지만 이번에는 물리적(시간적으로 어렵고, 공정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올해 특별전형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개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수능 시험장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점검을 하고 시험 당일 포항지역 시험장에는 소방공무원 2명과 구조대원 2명을 배치한다. 대중교통 편성 횟수를 늘리고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등 수능 당일 연례적으로 취해진 조치도 동일하게 취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은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상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담™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스킨스토퍼 및 전곡 백화점, 아모레 키오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스킨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